(717)

조 선

주체105 (2016) 3

차 례

표지: 출강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사진 박창복**

화보 《조선》은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로 발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년운동사적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1월 새로 건설된 청년운동사적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청년운동사적관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억세게 자라난 미더운 청년들이 부강조국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영웅적청년신화를 창조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에 즈음하여 훌륭히 건설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총서홀에 정중히 모신 청소년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에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청소년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휘황찬란한 미래에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소년들속에 함께 계시는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립상을 색조각상으로 모신것은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수령과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정말 잘 형상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시실들과 혁명사적물보존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매 년대기별로 꾸려진 전시실들에 정중히 모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진문헌들과 전시된 사적자료들, 사적물들은 억만금을 주고도 바꾸지 못할 혁명의 만년재보, 국보중의 국보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문제를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중차대한 전략적인 문제로,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청년운동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불멸의 업적이 있었기에 우리 당은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엄두조차 못내는 청년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수 있었으며 세상에 유일무이한 청년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의 크나큰 자랑이고 긍지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척하시고 빛내여오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처럼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을 지니고 청년중시사상을 변함없이 전략적인 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적관을 통한 교양사업과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청년운동사적관에 대한 현지지도에 접한 온 나라 청년들은 자기들을 기적과 승리의 위훈만을 아로새기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시대의 영웅, 창조와 혁신의 주인공들로 더욱 억세게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불타는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글 김대현

청년강국의 위용 더 높이 떨쳐가리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는 속에 지난 1월 17일 조선청년들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을 맞이하였다.

수도 평양에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기념 중앙보고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직들과 일군들, 청년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축하문에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창립후 지난 70년간 당과 수령의 크나큰 사랑과 현명한 령도밑에 이 세상 가장 조직력과 전투력이 강한 조직으로 위력떨치며 주체의 한길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전진하여왔으며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커다란 공적을 쌓아올렸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력사적분수령으로 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는것은 올해 우리 당과 인민의 총적인 투쟁목표이며 이 중대하고도 책임적인 임무를 수행하는데서 우리 당은 청년들의 역할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있다고 하면서 축하문에서는 존엄높은 백두산청년대강국의 위력을 떨치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동맹조직들과 일군들, 청년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하였다.

대회에서는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이어갈것이라는 보고를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회가 17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의 붉은 당기따라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싸워나갈것을 엄숙히 결의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을 맞으며 청소년들이 좋은일하기운동으로 마련한 《청년전위》호 포중정식이 진행되였으며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이 있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경축행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천겹만겹으로 굳게 뭉쳐 청년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쳐가려는 조선청년들의 억센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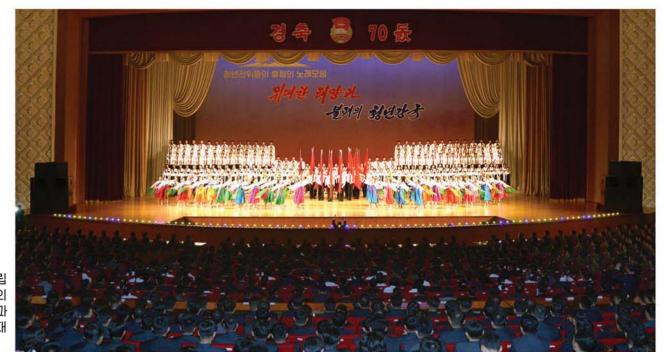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기념 중앙보고대회가 진행되였다.

미술전시회 《청년강국과 더불어 길이 빛날 불멸의 화폭》 진행

사진전람회 《태양과 청년강국》 진행

청년학생들의 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있었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회가 진행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경축 청년전위들의 충정의 노래모임 《위대한 태양과 불패의 청년강국》과 취주악대 행진이 있었다.

도 서 발 행

도서 《주체사상을 믿음직하게 계승하시여》

로씨야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칭송하여 도서 《주체사상을 믿음직하게 계승하시여》와 시집 《희망의 서광》을 발행하였다.

도서 《주체사상을 믿음직하게 계승하시여》는 로씨야 《포룸》도서출판사 사장 울라지미르 씌쵸브가 집필한것이다.

첫 부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답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사진문헌이 모셔진 도서는 6개 체계로서 서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력사와 현대, 강성국가건설, 조국통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략력으로 되여있다.

도서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인민적인 풍모 그리고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조선의 여러 분야에서 이룩된 눈부신 성과들에 대하여 서술되여있다.

시집 《희망의 서광》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칭송하여 로씨야작가동맹 성원인 류드밀라 아브제예바가 창작한 서사시와 시작품들을 묶은 도서이다.

글 김선경

시집 《희망의 서광》

농민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6(1947)년 2월

70년전의 환호소리

주체35(1946)년 3월 5일.

이날은 조선의 농민들이 땅의 주인으로 된 날이다.

벌써 70년이 되였다.

하지만 땅의 주인들의 그날의 환희는 오늘도 이 땅에 남아 굽이치고있다.

땅이 없이는 살수 없어 그 땅에 자기의 목숨을 잇대놓고 살아오면서도 봉건적인 착취와 일제의 군사적강점으로 하여 해방(1945. 8. 15.)전까지만 하여도 그 땅때문에 인간이하의 멸시와 천대속에 살아오지 않으면 안되였던 조선농민들이였다.

이들의 세기적숙망, 그것은 오직 하나 제 땅에서 자기 손으로 마음껏 농사짓는것이였다.

이러한 세기적숙망을 실현하여주신분이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대대로 가난한 농가에서 탄생하시여 어린 시절부터 농민들이 겪는 고생을 뼈아프게 체험하시였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국에서 하많은 일감을 두시고도 민주주의혁명의 선차적과업으로 토지개혁을 내세우시였다.

농촌길들을 끊임없이 걸으시며 어제날 지주집 머슴과도 만나시고 소작농들과도 무릎을 같이 하시며 농촌에 착잡하게 얽힌 봉건적토지소유관계와 계급관계를 료해분석하시고 주체35(1946)년 3월 5일에 력사적인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 토지개혁법령은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밑에 수백수천년동안 농촌에 뿌리박혀있던 착취적인 토지소유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농민들의 운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이였으며 토지문제해결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장쾌한 서막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땅에 자기의 이름을 쓴 표말을 박으며 감격과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리던 농민들의 환희로운 그 모습이 이 나라의 벌마다에 뜨겁게 슴배여있다.

그때의 감격에 대하여 어느 한 시인은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쳤다.

…
땅!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내 땅
삼천평!
…
아, 이 땅을 다 쥚어지고 일어설수 없어
가슴에 붙안고 차마 집으로 갈수 없어
두고서는 차마 한발자욱도 옮길수 없어
어머니는 아예 땅을 안고 누우시네
…

땅때문에 아버지와 남편, 세 자식을 잃었다는 한 농촌녀성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시의 한 대목이다.

이것이 어찌 그 농촌녀성 한명만의 심정이였겠는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평생소원을 푼 농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70년의 년륜과 더불어 세대는 바뀌였다.

허나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산천이 변한다 하여도 변하지 않는것이 있으니 그것은 자기들에게 참된 삶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려는 농민들의 식을줄 모르는 열망이다.

그 은덕 길이 전하며 사회주의농촌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은 이 땅에 자기들의 진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글 김충복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발포를 환영하는 농민들

토지를 분여받고

세기를 두고 내려오던 땅에 대한 농민들의 숙망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문수봉에 오르시여 나무를 심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6(1947)년 4월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공원에서 나무를 심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9(1990)년 4월

푸른 숲에 깃든 애국의 숭고한 뜻

조선에서 3월 2일은 식수절이다.

지금으로부터 70년전인 주체35(1946)년 3월 2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리신 **김정일**동지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함께 모란봉에 오르시여 일제의 군사적강점으로 하여 상처입은 조국산천을 바라보시며 푸른 숲이 우거진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그리고 다음해인 주체36(1947)년 4월 6일에는 문수봉에 오르시여 몸소 나무를 심으시면서 온 나라 인민을 식수사업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림을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밑천으로서만이 아니라 후대들도 덕을 보게 될 귀중한 재부로 보시였다.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1950. 6-1953. 7.)시기 한명한명의 군인이 그토록 귀하였지만 미제의 야만적인 행위로

식수절을 맞으며 나무를 심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4(2015)년 3월

무참히 파괴된 나라의 산림자원을 복구하기 위하여 수천명의 군인들을 제대시켜 산림감독원으로 보내신 그이이시였다.

전쟁승리를 위해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전선에 총동원하고 있던 시기에 오히려 전선에서 많은 인원을 떼내여 산림조성사업에 돌리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취하실수 있는 대용단이였다.

참으로 이 땅에 설레이는 푸른 숲에는 나무 한대를 베면 열대를 심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후대들에게 황금산, 보물산을 물려주자고 하시며 험한 산발도 앞장에서 헤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조국애가 깃들어있는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전화의 나날과 전후복구건설시기 장자산과 장산에서 나무를 심으시며 온 나라 인민들과 청소년들을 산림조성사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1990년대의 어려운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그이께서는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확신하시며 우리 대에는 비록 락을 보지 못하더라도 후대들에게는 풍만한 산림자원을 넘겨주어야 한다시며 산림을 보호하고 적극 늘이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인민군군인들이 부대주변의 산에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꾼것을 보시면 더없이 기뻐하시며 병사들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애국자부대라고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시였고 살구나무나 감나무들이 우거진 마을과 인민군초소들을 보시면 환하게 웃으시며 살구나무동네, 감나무중대라고 민족의 향취를 담아 정답게 불러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타는 애국의 마음에 떠받들려 이 땅에는 푸른 숲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오늘 나라의 산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더욱 훌륭히 변모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10년안에 모든 산들을 푸른 숲 설레이는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실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안으시고 산림복구전투에로 천만군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산림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인민들의 애국적열정, 현실적가능성에 기초한 산림조성계획들이 세워지고 도처에 있는 나무모생산기지들이 더욱 강화되였다.

전사회적으로 사회주의애국림운동, 모범산림군칭호쟁취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산림조성과 보호에서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이 뚜렷이 발휘되고있다.

나날이 변모되는 조국산천을 바라보며 조선의 천만군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심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긍지와 행복을 더욱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사진 리학명 글 김충복

온 나라가 산림조성사업에 떨쳐나섰다.

나무모생산의 공업화, 현대화가 실현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로력적성과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는 조선에서 굴지의 건재생산기지로 널리 알려져있다.

지난해에도 기업소에서는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갈 일념을 안고 떨쳐나선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수많은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1월 백절불굴의 의지로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감으로써 지난해 최고생산년도보다 수만t의 세멘트를 증산하여 건설의 대번영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데 특출한 기여를 한 기업소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축하전문을 보내주시고 전례없는 세멘트생산성과로 조선로동당의 대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크게 공헌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조석으로 강산이 변하는 위대한 조국번영의 시대를 열어놓는데 크게 이바지한 기업소로동계급이 사회주의문명국의 만년미래를 담보하는 주추돌이 되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최상의 믿음을 받아안은 기업소로동계급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세멘트증산의 동음을 쉬임없이 울려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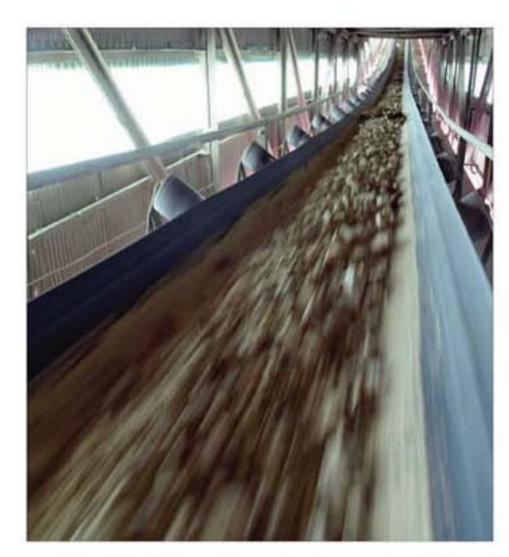
100% 자기들의 지혜와 기술, 힘으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나라의 풍부한 원료와 연료에 의거하여 고질세멘트를 생산하고있다.

로동자, 기술자들속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선진과학기술이 생산에 적극 연구도입되고 생산공정들의 현대화, 정보화가 실현되고있다.

하여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올해의 보람찬 투쟁에서도 새로운 기적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나가고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정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로력적성과로

황철이 들끓는다

전국의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에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적으로 맞이할데 대한 호소문을 발표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철강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지난해 련합기업소에서는 산소열법용광로에 의한 주체철생산체계를 완비하여 금속공업의 주체화에서 큰걸음을 내짚었다.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형산소분리기총조립공사와 종전용광로의 로해체 및 로제작설치공사, 공기압축기설치와 용수계통등의 완성, 변전소개건을 비롯한 방대한 설비제작과 조립, 건축공사들을 립체적으로 내밀어 짧은 기간에 해제꼈다.

그리고 과학연구부문의 과학자,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산소열법용광로의 건설과 초고전력전기로의 현대화, 고온공기연소기술의 도입, 합금철생산기지건설과 중량레루생산체계의 완비에서 나서는 수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지금 용광로와 대형산소분리기, 초고전력전기로들이 생산종합지령실과 매 공정조정실에서의 감시, 조종하에 가동하고있다.

생산공정들이 훌륭히 꾸려진데 토대하여 련합기업소에서는 석탄과 철정광을 비롯한 원료보장을 확고히 앞세우고 모든 생산공정단위들에서 표준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면서 철강재생산을 계속 늘여나가고있다.

사진, 글 박병훈

중량레루생산을 위한 소재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호평받는 《매봉산》신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원산구두공장에서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지난해 새롭게 개건된 공장에서는 생산공정들의 현대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중요한 정책적문제로 틀어쥐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제화직장, 사출작업반, 재단작업반 등 기본생산단위들에 나간 장승호, 전명화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로동자, 기술자들과 기술협의도 현장에서 하고 필요한 원료자재보장대책도 제때에 세워주면서 종업원들의 생산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협조속에 지난 1월 공장에서는 제화직장의 접착공정에 먼적외선 등을 도입함으로써 종전보다 전력소비는 50%이하로 낮추면서도 접착세기는 2배로 높이였다.

공장에서는 신발도안을 적극 선행시켜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 년령심리적특성은 물론 계절에 따르는 신발들을 생산하는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적극 내밀고있다.

지난해 많은 도안들을 창안하여 기본품종 23종에 확대품종 114종을 생산하는데 이바지한 도안실 기술준비원들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신발들이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되고 견고성이 보장된 명제품, 명상품이 되도록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이들만이 아니라 갑피직장의 재봉공들과 재단작업반과 사출작업반의 기대공들도 높은 책임감과 주인다운 기풍을 발휘하면서 생산하는 신발 하나하나에 자기들의 정성을 바쳐가고있다.

인민들에게 다양하고 맵시있는 신발들을 더 많이 보내주려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높은 열의속에 생산되고있는 《매봉산》상표를 단 원산구두공장의 신발에 대한 수요와 호평은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사진, 글 리광성

전민과학기술보급의 거점

평양을 감돌아 흐르는 대동강의 쑥섬이 천도개벽되였다.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구상을 완벽하게 구현한 21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 과학기술전당이 우뚝 솟아오른것이다.

연건축면적이 10만 6 600여㎡인 과학기술전당은 전자궤도를 형상한 3개의 타원체들이 한층씩 겹친 원자구조모양을 이룸으로써 과학의 세계를 련상케 하는 독특한 현대식건축물이다.

과학기술전당은 자연채광에 의한 실내조도보장, 지열에 의한 랭난방보장체계, 풍력과 태양에네르기를 리용하는 전력생산체계를 도입하고 건물관리의 지능화를 실현한 에네르기절약형건축물, 건물내외부의 록색환경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건축물이다.

인류가 이룩한 수억건의 선진과학기술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종합정리한 대규모과학기술자료기지가 구축되여있는 이곳에는 정보봉사를 받을수 있는 안내홀들과 전자열람실들, 부문별과학기술보급실들과 아동열람실, 학생전자열람실, 장애자열람실, 원격강의실, 학술토론회장, 학술토론회실, 학습문답실, 기술교류실 등과 자체학습홀들이 있는데 전자열람좌석수는 수천개나 된다.

또한 자료기지구축과 봉사기운영 및 프로그람개발, 콤퓨터망운영, 정보봉사 등을 담당한 수백명의 전문가들이 있다.

전당에서는 망봉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2만여부의 장서능력과 100여개의 좌석을 가진 새책열람홀을 통하여 최신과학기술도서, 잡지들에 대한 열람봉사도 한다.

전당안의 과학기술전시장구역에는 인류가 이룩한 과학기술발전성과들과 자연과 사물의 리치, 해당 부문의 과학기술을 원리적으로 체득하게 하는 과학기술발전력사관, 어린이꿈관, 과학탐구관, 가상과학실험실을 비롯한 10개의 부문별과학기술관들과 과학 및 률동영화관이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축전과 각종 전시회들을 진행할수 있는 림시전시장도 있다.

과학기술상징탑이 정면에 솟아있는 전당의 야외에는 분수공원, 야외학습터들과 함께 야외과학기술전시장이 꾸려져있다.

독자들과 참관자들의 편의를 위한 책방과 상점, 식당 등도 그쯘하게 있으며 과학기술전당과 외랑으로 련결되여있는 500명 수용능력의 23층으로 된 과학자숙소도 훌륭하게 꾸려져있다.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 대학생들은 물론 전체 인민이 모든 과학기술자료들을 보면서 마음껏 배울수 있는 선진과학기술보급의 거점, 다기능화된 과학기술봉사기지인 과학기술전당이 지난 1월 1일 준공한 때로부터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있다.

사진, 글 안철룡

전민과학기술보급의 거점

기초과학관

새책열람홀

전민과학기술보급의 거점

원격강의실

전자열람실

과학기술발전력사관

어린이꿈관

전민과학기술보급의 거점

학술토론회실

첨단과학기술관

응용과학기술관

우승에로 이끄는 손길

오늘 강성국가건설의 여러 분야에서 강의하고 고상한 조선녀성의 풍모를 긍지높이 보여주고있는 녀성들속에는 체육인들도 수없이 많다.

조선로동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받들어 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할 훌륭한 체육선수들을 키워가는 보람찬 길에서 3.8국제부녀절 106돐을 맞는 녀성체육일군, 감독들중의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사진 안철룡, 최설희 글 최광호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 부단장
로력영웅 인민체육인 황영미

공화국의 첫 녀자태권도선수의 한사람으로서 선수생활기간 3차례의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11개의 금메달을 쟁취하고 녀자태권도최강자로 명성을 떨친 황영미는 그후 감독으로 사업하는 10여년동안에 자신이 키운 선수들을 이끌고 9차례의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여 매번 종합1위를 쟁취하였다.

하여 주체92(2003)년에 진행된 제13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최우수감독상을 받기도 하였다.

그가 키운 제자들속에서 10명의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이 나왔다.

선수가 금강석이라면 감독은 세공사이다. 이것이 그의 주장이다.

기관차체육단 예술체조감독
공훈체육인 박광복

1980년대 중엽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 국내예술체조계의 패권자였으며 주체79(1990)년 8월에 진행된 제7차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2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던 박광복은 그후 감독으로 사업한 20여년동안에 여러명의 국내선수권보유자를 포함한 우수한 선수들을 많이 키워냈다.

지난해에만도 그가 이끈 선수들은 거의 모든 국내경기들에서 우승을 하였으며 국제경기들에서도 11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실패와 난관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성과에 자만하지도 말라, 그는 선수들과 함께 자기자신에게 항상 이렇게 강조한다.

그리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선수들과 함께 계속 힘차게 달리고있다.

평양체육단 기계체조감독 인민체육인 김춘필

김춘필은 조선의 녀자기계체조종목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는데 커다란 공로를 세운 이름있는 감독이다.

그의 감독사업은 정열적인 사색과 탐구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한 피타는 노력의 반복과정이다.

감독의 실력이자 곧 선수의 경기성과라고 굳게 믿고있는 그는 매 세부종목들의 기술적특성을 완전히 파악한데 토대하여 세계적인 발전추세와 선수들의 육체기술적준비정도에 맞게 모든 훈련을 과학적으로 지도한다.

30여년간 감독으로 있으면서 김광숙, 홍은정과 같은 세계선수권보유자, 올림픽금메달수상자들을 포함하여 훌륭한 기계체조선수들과 10여명의 전문가들을 키워냈다.

기관차체육단 력기감독 김춘희

조선체육대학을 졸업한 후 평양의 한 청소년체육학교에서 지도교원으로 있던 김춘희가 기관차체육단에서 감독사업을 시작한것은 주체97(2008)년 12월이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주체101(2012)년에 그는 공화국10대최우수감독으로 뽑힌데 이어 그 다음해 그리고 지난해에 또다시 선정되여 사람들을 놀래웠다.

선수들을 위해 헌신하는것을 락으로, 보람으로 삼고 자기의 지식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그의 꾸준하고 성실한 모습은 립정심을 비롯한 그가 키운 선수들 거의 모두가 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승리의 시상대에 올라 람홍색공화국기를 휘날리게 한 원천이였다.

4. 25체육단 물에뛰여들기감독
인민체육인 신정림

신정림은 주체84(1995)년에 진행된 제1차 세계군대종합체육경기대회 물에뛰여들기 녀자1m탄성판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그후 체육애호가들의 기억에서 점차 희미해져가던 그의 이름이 사람들의 뇌리에 더욱 깊이 새겨졌다.

그가 키워낸 선수인 김국향이 지난해에 진행된 제16차 국제수영련맹 세계선수권대회 물에뛰여들기 녀자10m고정판경기에서 우승을 쟁취한것이다.

귀한 자식 매로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훈련지도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지만 생활에서는 다심한 어머니와도 같은 그의 높은 체육정신과 고상한 품성이 국제경기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이 10대의 나어린 처녀가 세계선수권까지 보유하도록 떠밀어주었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공화국10대최우수감독으로 선정된 그의 앞으로의 성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희천3호발전소

희천4호발전소

희천8호발전소

청천강이 전기강으로

수력자원을 위주로 하여 전력생산을 늘일데 대한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정책에 따라 조선의 중서부와 북서부를 경계지으며 흐르는 청천강에 계단식발전소가 일떠서 나라의 전력생산에 이바지하고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는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당이 제시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영웅적위훈과 줄기찬 투쟁, 불굴의 정신력과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지난해에 건설한 자랑찬 창조물이다.

청천강의 200여리 구간에 계단식발전소가 일떠섬으로써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청천강일대의 농경지와 공업 및 주민지구를 큰물피해로부터 보호할수 있게 되였으며 이 지역의 공장, 기업소, 농촌들에 공업용수와 관개용수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서 전력공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자각하고있는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물관리, 설비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발전기마다에 만부하를 걸고있다.

발전소의 로동자들은 송전계통을 보다 완비하고 발전기의 대당 출력을 높이기 위한데 력량을 집중하여 생산실적을 올리고있으며 교대사이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전력생산성과를 확대하고있다.

그들은 계통별에 따르는 부하조절을 합리적으로 하고 발전설비보수정비를 예견성있게 하여 물량이 적은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전력생산을 최대로 늘이도록 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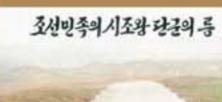
청천강계단식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전력증산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맞이할 불타는 애국열의를 안고 전력증산의 불길을 더 높이 지펴올리고있다.

사진, 글 김효심

희천9호발전소

희천11호발전소

우표의 력사를 더듬어

조선에서 발행된 첫 우표들인
《무궁화》와 《삼선암》
주체35(1946)년

국제박람회들과 전시회들에서 받은 컵과 상장, 메달의 일부

조선우표창작가들

해방(1945. 8. 15.)된 조선에서 우편업개시를 기념하여 첫 우표들인 《무궁화》와 《삼선암》이 발행된것은 70년전인 주체35(1946)년 3월 12일이다.

이때로부터 조선우표는 단순히 우편료금의 지불을 확인하는 증서로서만이 아닌 사람들의 지식을 넓혀주고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수단으로 적극 리용되여오고있다.

평양의 창광거리에 있는 조선우표박물관에 가면 지난 70년동안 조선에서 발행된 각종 우표들을 다 볼수 있다.

조선의 첫 기념우표는 조국해방 1돐을 맞으며 발행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영상을 모신 우표이다.

그때로부터 조선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기념우표들이 태양절과 광명성절 그리고 여러 국가적명절들을 맞으며 계속 발행되여오고있다. 그리고 새 조국건설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 시기들을 거쳐 강성국가건설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화국이 정치와 경제, 과학과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눈부신 성과들을 보여주는 우표들도 수많이 발행되였다.

그뿐이 아니다. 민족적전통과 풍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는 조선인민의 다양한 생활모습을 형상한 우표들, 세계우표발전추세와 우표수집가들의 취미를 반영하는 여러가지 주제의 우표들도 많이 내놓았다.

그만큼 오늘의 벅찬 현실을 반영하고 사람들에게 사회와 자연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정서를 안겨주는 훌륭한 우표들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한 국가우표발행국의 일군들과 창작가들의 활동도 항상 드바쁘다.

조선은 주체54(1965)년 6월 15일에 국제우표수집가련맹(FIP)의 성원국으로 되였다.

사진 김윤혁 글 최광호

활발해지는 태권도소조활동

- 김성주소학교에서 -

평양의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자리잡고있는 김성주소학교에서는 조선민족의 고유한 전통무도인 태권도에 대한 교육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주체82(1993)년에 조직된 학교태권도소조는 지난 시기 정일봉상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 소학교부문 태권도경기에서 6차례에 걸쳐 종합1위를 쟁취하여 우승컵과 많은 금, 은, 동메달들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학교의 졸업생들은 국제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1위를 하였으며 수십여차의 태권도시범경기도 진행하였다.

학교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수방법과 훈련지도를 꾸준히 참신하게 해나가고있다.

과학적인 육체발달지표측검에 기초하여 적성체질의 태권도선수후비들을 선발하고 학생들의 나이와 체질, 심리적특성에 맞게 교육의 순차성과 체계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교수훈련지도를 짜고들고있다.

특히 태권도기초기술동작들에 대한 표상을 정확히 가지도록 하면서 완강한 투지와 인내력을 배양하고 고상하면서도 강의한 정신도덕적풍모와 기술적기초를 갖춘 미래의 선수후비들을 키워내기 위한 원리교육과 직관교육을 강화하고있다.

또한 단계별 목표를 제시해주고 그에 따르는 훈련기준과 강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줌으로써 각종 기술동작들을 정확히 수행하도록 준비시켜가고있다.

이와 함께 기본련습들에서 조선태권도위원회 사범들과 관록있는 태권도감독들과도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교육사업의 질을 개선하고있다.

학교에서는 오늘 학생들이 태권도모국의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전도유망한 태권도선수후비들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이 사업을 활기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사진 홍광남 글 박병훈

기초기술동작들을 정확히 수행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불행을 모르고 살아온 50여년

김원균명칭음악종합대학 공훈예술가 김명숙

조선장애자예술협회 성원들과 작품토론회를 진행하고있다.

외국공연의 나날에

50여년전 평양시 중구역 종로동에는 때없이 밤깊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집이 있었다.

음악에 취미가 있어 노래를 곧잘 부르는 딸애가 가야금도 타겠다고 떼를 쓰다가는 제풀에 잠들군 하여 부모들이 잠못들군 하였던것이다.

마음같아서는 가야금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한것도 해주고싶은 부모들이였지만 앞못보는 딸애에게 있어서 그것은 실현될수 없는 꿈이여서 더더욱 마음이 아팠다.

당시 5살이였던 그 소녀, 가야금을 타겠다고 떼를 쓰던 눈먼아이가 바로 오늘은 가야금독주가로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긍지높은 삶을 누려가고있는 김명숙녀성이다.

낳은 부모도 눈먼자식이라고 앞날에 그늘만 지워주던 그때 어린 명숙이의 소질과 꿈을 귀중히 여기고 키워주는 품이 있었다.

나라에서 세워준 대동맹학교에 입학한 명숙은 무료교육의 혜택속에 공부도 하고 예술소조원이 되여 가야금도 배웠다.

그리고 예술소조경연무대에도 나섰다.

뛰여난 가야금연주솜씨로 하여 공연때마다 절찬을 받은 그는 14살때부터는 당시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예술적재능을 마음껏 꽃피워가게 되였다.

뜨거운 정을 기울여주는 교원들과 학생들속에서 명숙은 어엿한 가야금독주가로 성장하였을뿐아니라 당시까지 전통음악만 연주하던 가야금으로 현대음악도 연주할수 있도록 개량하는데도 적극 이바지하였다.

그는 후비육성을 위한 길에도 재능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나라에서는 장애자의 몸으로 예술활동에 적극 참가하고있을뿐아니라 미래의 음악가들을 키우는데 많은 기여를 한 그에게 공훈예술가의 칭호도 안겨주었다.

지난해에는 장애자예술단의 한 성원으로 외국공연무대에도 내세워주었다.

그가 영국방문공연에서 제자와 함께 가야금 2중주를 하였을 때 사회자가 이들은 평범한 가야금수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이다, 앞못보는 명숙선생이 20년간 이렇게 훌륭한 제자를 키웠다고 장내에 알리자 관람자들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명숙녀성은 그날 이렇게 말하였다.

《훌륭한 제자의 뒤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다고 저에게도 키워주고 내세워준 참된 스승, 사회주의 내 조국이 있습니다. 앞못보는 소녀의 꿈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같이 활짝 꽃피워준 고마운 조국이 있어 저는 50여년간 불행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김명숙녀성은 오늘도 누려가는 삶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가야금의 선률에 담아 끝없이 울려가고있다.

사진 김윤혁 글 김태현

바둑명수들이 자란다

- 황해남도바둑원에서 -

예로부터 조선에서 민속놀이의 하나로 즐겨하여온 바둑은 오늘 민족체육종목으로 적극 장려되고있다.

날을 따라 늘어나는 바둑희망자들을 위한 바둑원들이 각도마다에 꾸려지고 그 운영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해주시에 있는 황해남도바둑원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급사업과 함께 바둑에 소질과 취미가 있는 나어린 학생소년들에 대한 소조운영에도 힘을 넣어 바둑선수후비들을 많이 키워내고있다.

지난해에 진행된 전국바둑급별 경기에서 1부류 남자개인과 녀자개인, 혼성복식 그리고 2부류 혼성복식경기에서 각각 1위를 쟁취하고 종합 1등을 한 선수들도 이 바둑원의 소조원들이였다.

《장기천수에 바둑만수》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수가 많고 다양하며 폭이 넓고 깊어 높은 지능을 요구하는 바둑경기에 출전하여 이런 성과를 가져온것은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 미래의 바둑명수들을 많이 키워내려는 황해남도바둑원 일군들의 애국의 마음과 헌신적인 노력이다.

그들은 나어린 소조원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는 훈련방법들을 적극 탐구하는 등 과학적인 방법론을 세워 지도하고있다.

바둑원에서는 기초교육으로부터 수읽기, 형세판단 등 소조원들에게 높은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단계와 목표를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고있다.

여기에서 소조원들의 훈련을 담당한 지도교원 김철범이 내놓은 훈련방법이 은을 내고있다.

사활수풀이를 비롯하여 바둑에서 기본인 수읽기를 위주로 하면서 형세판단능력을 키워주는 그의 훈련지도는 소조원들이 하나를 보고 열을 알도록 할뿐아니라 원리적으로 사고하고 본질을 마지막까지 파고드는 습관을 가지게 하고있다.

이러한 훈련지도는 소조원들의 상대에 대한 반응력을 높여주는 동시에 경쟁심도 불러일으키고있다.

바둑원에서는 소조원들 호상간만이 아니라 성인들과의 경기도 자주 조직하고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경기담을 키워주는 좋은 계기로 되고있다.

지금 이 바둑원의 소조에서는 해주시를 비롯하여 도안의 여러 군에서 선발된 유치원어린이들과 소학교, 초급중학교 학생들이 미래의 바둑명수가 될 꿈을 꽃피워가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김현희

군국화에로 질주하는 위험한 전쟁국가

죄악에 찬 력사의 부정, 빈번한 령토분쟁야기, 꺼리낌없는 호전적 망언들, 이것이 오늘 국제사회에 비쳐지는 일본의 모습이다.

극도로 우경화된 일본정계의 사고관점은 침략과 전쟁으로 얼룩진 죄악에 찬 제국주의시대의 일본을 되살리려는데 못박혀있다.

현당국은 《국가를 보호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것》이라는 허울밑에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한 《안전보장관련법》을 제정하고 무력증강에 더욱 본격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새로운 《일미방위협력지침》에 따르는 《안전보장관련법》의 제정으로 하여 일본주변에만 국한되였던 《자위대》의 활동범위는 전세계에로 확대되게 되였다.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구실로 오늘날 일본의 《자위대》와 정규무력과의 차이가 없어진지는 오래다.

일본은 지난 세기에 이미 대규모적이며 현대적인 정규무력의 구성요소들을 대부분 갖추었다.

최근 시기 일본정부가 《자위대》의 기동타격력과 작전능력을 고도로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방위계획대강》을 뜯어고치고있는것, 미해병대와 같은 무력창설을 추진하고있는것 등은 그 작전능력을 높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하려는것외에 달리 볼수 없다.

재침은 《자위대》의 사명으로, 성격으로 되였다.

일본제국주의의 패망과 함께 응당 매장되였어야 할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국기, 국가로 정한 일본은 《전수방위》로부터 《선제공격전략에로의 이행》을 운운하며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개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외침략에 장애로 되고있는 현행헌법을 뜯어고치려 하고있다.

오늘날 더욱 방대한 전투무력을 가지고있는 일본이 그것도 성차지 않아 국방예산을 더욱 늘이고 최신군사기술의 획득, 신형무장장비의 구입에 계속 열을 올리는것은 어제날의 전패국, 전범국이 또다시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의 길로 나가고있음을 세계앞에 공공연히 선언한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일본을 주시하는 주변나라들과 국제사회의 눈길은 매우 날카롭다.

천인공노할 대량살륙만행을 저지르고도 얼굴을 전혀 붉힐줄 모르며 비렬하고 간특한 요설로 국제법상책임과 도덕적의무를 회피하는 행성의 유일무이한 나라, 군국주의의 재생을 부르짖으며 반평화적인 70여년을 새겨온 일본은 더이상 인간사회에, 우리 행성에 존재할 자격조차 없다는것이 정의와 량심의 목소리이다.

일본에 이런 속담이 있다.

장래생각을 하지 않는자 불행한 날을 면할수 없다.

일본은 조상대대로 전해져내려오는 이 속담을 자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글 김효심

낸곳 : © 조선화보사 2016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인쇄소 : 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ISSN 1727 - 9224

편집 서철남 13606—681111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내 나라》 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 //www.naenara. com. kp 전자우편(E－mail) : flph@star－co.net.kp

뒤표지: 미래과학자거리의 밤 사진 김혁철